



‘응답하라 1988’ 종영...무엇을 남겼나

세대간 경계 허물고 가족 의미 되새겨

20화 순간 최고 시청률 21.6%, 매출 220억...케이블 새 기록

그시절 음악·패션·영화·과자 등 유행 고스란히 불러내

그렇게 세월은 가는거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는 늘 이어진다. ‘응답하라 1988’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에 뒤늦은 인사를 고하며” 16일 시청자와도 이별했다. 마지막 20화 ‘안녕 나의 청춘 굿바이 샹송’은 지난 두달여 시청자를 행복하게 했던 ‘응답하라 1988’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동시에, 드라마와 함께 울고 웃었던 시청자에게 각자의 지나간 시간들과 추억을 되새겨보게 만들었다.

김, 상추, 고구마부터 전복죽에 갈비찜까지 나눠먹는다. 라면과 짜장면, 치킨, 피자에 감자볶음밥과 ‘총각김치’를 곁들인 ‘함박스테키’는 함께 빙 둘러앉아 먹는다. 배달음식을 홀로 시켜먹는 1인 가구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응답하라 1988’ 속 이어지는 ‘다같이 먹방’은 ‘이국적 풍경’인 동시에 명치 끝을 빠근하게 자극한다. 세대 간 단절이 심하고 개인주의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지금, 이 드라마가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공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식구’의 모습에서 출발한다. 아무리 30년 전이라 해도 서울 도심에서 이런 풍경은 사실적이지 않다. 그러나 1980년대가 지금보다는 인정이 있고, 정겨웠다는 데는 별 시비가 붙지 않는다. 썸문등 식구는 그러한 잃어버린 정서와 가치를 상징한다.

극중에서도 막판 1994년이 되니 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큰 자식들과 밥 한 끼를 먹기는커녕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다며 섭섭함을 토로하는 게 그려

졌다. 봉황당 꿀꿀 사람들은 같이 먹는 행위에서 시작해 일상을 공유했고, 희로애락을 함께 짊어졌다. 고스톱을 함께 치고 TV와 비디오를 같이 보면서 사계절을 맞이했고, 누군가가 쓰러지면 돌아가며 간병을 하면서 서로의 시간을 나눠가졌다. 식구에서 파생되는 갖가지 소소한 이야기와 ‘개알 재미’들은 30년의 시간을 극복하고 오늘의 우리를 사로잡았다.

1988년 서울 도봉구 썸문동의 다섯 가족 이야기에서 시작된 복고 ‘태풍’은 대중문화를 비롯해 한국사회 전체를 집어삼켰다.

‘응팔’은 가요와 드라마, 개그, 영화, 광고 등 당대 대중문화와 유행을 고스란히 불러냈다.

추억을 가장 강력하게 환기한 것은 음악이다. 정환-선우-동룡 3인방이 경주 수학여행에서 보여줬던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와 1988년 MBC대학가요제에서 수상한 무한케도의 ‘그대에게’ 등 그때 그 시절 노래는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이에 힘입어 이문세의 ‘소녀’(1985)를 비롯해 그 시절 명곡을 리메이크한 ‘응팔’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가 음원차트 상위권을 점령했다. 지난달에는 전영록, 조정현 등이 참석한 ‘어게인 1988’ 토크 콘서트가 열리기도 했다.

가나초콜릿 광고로 스타덤에 오른 이미연과 극 중 동일내 부부싸움을 유발할 정도로 고왔던 김혜수, 스포츠브랜드 리복 광고가 지금도 인상적인 이종원 등 당대 청춘스타들도 ‘응팔’을 통해 다시 부각됐다. ‘영

웬본색’과 ‘천녀유혼’, ‘다이하드’ 등 당시 젊은이들의 혼을 속 빼놓았던 외국 영화들을 재발견하는 재미도 컸다. 1980년대 주말을 함께 한 KBS 2TV ‘유머 일번지’의 인기 개그들도 되살아났다.

‘응팔’ 위력은 1993년 생선이 중단된 크라운맥주를 22년 만에 되살려낼 정도로 대단했다. 썸문동 아줌마 3인방이 평상에 모여앉아 시원하게 들어기던 그 맥주다. 가나초콜릿은 ‘응팔’ 여주인공 덕선 역의 헤리를 모델로 발탁, 당시 광고를 재연해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응팔’ 간접광고(PPL)에 적극 참여한 롯데제과는 가나초콜릿을 비롯해 드라마 등장 제품을 모은 ‘추억의 과자’ 판매전도 진행했다. 88비엔나를 비롯한 CJ 제일제당 백설랭88 에디션과 해태제과 브라보콘도 옛 디자인으로 살아있고 시장에 나왔다.

출발부터 심상치 않더니 결국 ‘사교’를 쳤다. 마지막 20화의 시청률은 평균 19.6%(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순간 최고 21.6%를 기록했고 매출은 220억 원을 넘어섰다. 케이블의 새 기록을 세웠다.

주요 출연진이 이 드라마 덕에 촬영한 광고만 55개이고, 이 드라마가 소환한 1980년대 음악은 3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지금의 10~20대를 사로잡고 있다. 16일 현재 멜로 음원차트에는 ‘소녀’, ‘격정말야오 그대’, ‘함께’, ‘해화동’, ‘청춘’, ‘네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세월이 가면’, ‘이젠 잊기로 해요’, ‘매일 그대와’ 등 무려 9곡의 ‘응답하라 1988’ OST가 50위 안에 들어있다. OST는 음반 판매와 함께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음원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드라마 관련 상품은 버스카드, 우표, 포도엽서 등 총 8종 11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리브스토리 막판 대반전

“아이고, 어남택이 웬열”

〈어차피 남편은 택〉

‘어남류’파는 실망감 토로

〈어차피 남편은 류준열〉

1화부터 ‘응답하라 1988’ 시리즈를 관통해왔던 덕선(혜리 분)의 미래 남편이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드디어 해소됐다. 답은 ‘상등신’이자 ‘천재 바둑기사’ 최택(박보검)이었다.

‘어남택’(어차피 남편은 택)파와 ‘어남류’(어차피 남편은 류준열)파로 나뉘어 극렬하게 언쟁을 벌였던 팬들은 답이 공개되고 나서도 밤새 갑론을박 인터넷 세상을 뜨겁게 달궜다. 덕선의 남편이 최택으로 드러나자 ‘어남택’파는 팔파르를 울렸고, ‘어남류’ 파들은 실망감을 토로하며 “응답하라 시리즈 최대 반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응답하라 1997’과 ‘응답하라 1994’도 여주인공의 남편이 누구냐를 놓고 끝까지 시청자를 궁금하게 했지만, 사실은 극중 서인국과 정우가 보여준 무계감과 비중이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컸기에 그들이 결국 남편으로 귀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응답하라 1988’은 앞선 작품들과 같은 공식을 대입하자면 류준열이 연기한 정환이, 박보검이 연기한 택보다 덕선의 남편으로서 가능성이 커 보였던 게 사실이다. 초중반까지 정환의 비중이 높았고 택은 약했고 뭔가 걸도는 느낌을 줬던 데다, 무엇보다 덕선의 미래 남편으로 출연한 김주혁의 비주얼과 그가 연기한 까칠한 캐릭터에서 시청자들은 택이 아닌 정환을 덕선의 남편으로 ‘확신’했다. 중반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후반부 덕선을 향한 택의 마음과 역할이 치고 나오면서 ‘어남류’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17~18화를 거치면서 ‘어남택’으로 확연히 대체가 기우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19화에서는 그동안 택이 꿈속에서 덕선과 키스한 것으로 믿어왔던 일이 실제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음이 드러났고, 친구 정환을 의식해 자신의 마음을 애써 눌러왔던 택이 덕선에게 다시 한번 승부를 걸어 사랑을 쟁취하는 내용이 펼쳐졌다.

하지만 막판에 불이 붙은 덕선과 택의 리브스토리가 마지막회에서 이렇다할 전개 없이 현재로 넘어와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 이 드라마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수법’대로 궁금했던 장면들에 대한 뒷 이야기가 마지막회에서 다 펼쳐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정환이의 고백이나 택이의 사친 방문 등에 관한 뒷 이야기가 없어 못다한 스토리가 많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정환이의 이야기가 막판에 갑자기 사라져버린 게 아니냐는 성토가 이어졌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8일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들쥐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신년 기자회견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신년 기자회견 2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25 기본 좋은 날	10 SBS 뉴스 30 SBS 생활뉴스 50 KBC 생활뉴스
11	30 나는 몸신이다	05 KBS네트워킹특선 해인침식의 두 얼굴	00 월화드라마 (우림학교)(재)	30 리얼스토리 논	10 닥터 365 15 세계문화탐방 지구촌특제
12	40 채널A 뉴스 특보	00 KBS 뉴스 12		1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뉴스 10 닥터 365 55 2016 신년기획 (다시 호남을 말한다)
1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 50 별빛가족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출발 드림팀 2(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2		00 명인(재) 50 콘서트 필(재)	00 KBS 뉴스타임 10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2.0	00 키즈 사이언스 5	15 이색직업 별나학교(재)
3	00 이언경의 직면직설	40 아생일기 10 바른말 고운말(재) 55 튜튼생활제	05 후토스 읽어버린 숲(재) 30 자몽공부책상 위키	00 MBC 뉴스 10 똑똑 키즈쿨 55 타스의 풀이풀이 시사서어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세계인 스페셜 20 취재파일 K	00 TV유치원 30 아육정 PD의 요리인류키친 40 동물의 세계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야 30 인생 지두야
5	50 김승연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글로벌 남편 백서 내편 남편(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닥터 지 바고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우기	50 일일드라마 (다 잘될거야)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토크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우리집 골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무림학교)	00 월화 특별기획 (화려한 유혹)	00 청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11	00 풍문으로 들었소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행 길	15 힐링 캠프 500인
12	40 동갑내기 여행하기 (재)	20 해외걸즈드라마 설류 시즌3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3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BS1		
05:00 EBS에 생활 영어	09:40 부모-생활 보감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05:30 건강한 아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꼬마기사 마이코
05:40 요리비전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세계사 시간여행
06:10 EBS 인문학 특강	11:10 문화유산 코리아	15:40 모피와 친구들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5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재)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00 EBS 정오 뉴스	16:30 코코코 다코
07:45 로보카 폴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 1	16:45 땡땡땡 유치원 1~3(재)
08:00 땡땡땡 유치원 1	13:05 지식채널e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08:0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13:10 프레임 인	17:45 로보카 폴리
08:20 땡땡땡 유치원 2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
08:30 두다다콩	13:50 오스카의 오아시스	18:05 캐니발
08:40 땡땡땡 유치원 3	14:00 초등 1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8:2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2
08:45 코코코 다코	14:20 초등 5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8:25 두키 탐험대
09:0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	14:40 초등 3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8:4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3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4일(음 8월 11일 己亥)
子	48년생 폭발적인 양상을 띠게 되리라. 60년생 참으로 힘들더라도 중도에서 그만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라. 72년생 상대도 모두 인식하고 있으니라. 84년생 한가지 일에 전력투구해야만 성공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74, 83	42년생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중극적인 결과는 같다. 54년생 궁금해 왔던 것에 대한 실마리를 찾게 된다. 66년생 선행을 하고도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78년생 상대가 싫어한다면 굳이 행할 필요가 없었다. 행운의 숫자 : 82, 52
丑	49년생 지금은 분명한 형식을 갖추어서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 61년생 너무 느껴져 있다는 것이 바로 하자이니라. 73년생 뜻밖의 좋은 일을 접하겠다. 85년생 선행을 인식한다면 시행착오 없이 넘어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7, 88	43년생 지금까지도 만전시키는 것이 백번 낫다. 55년생 비중 있는 곳에 시간 할애를 하는 것이 이의이다. 67년생 기왕에 벌어진 마당이라면 선수를 치는 것이 옳다. 79년생 가운데에 끼어서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3, 45
寅	50년생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리라. 62년생 차별화시키지 않는다면 파격적인 진전을 도모하기 힘들 것이다. 74년생 상대의 반응이 시원치 않겠다. 86년생 무리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19, 49	44년생 다른 관점에서 조망해 보자. 56년생 확신이 서면 과감하게 실행해도 무방하다. 68년생 실익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80년생 공이 어디로 떨어지 모르니 모든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결정하자. 행운의 숫자 : 54, 60
卯	51년생 자연스럽게 실감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 다. 63년생 어설피게 대하면 여러 가지 단차가 드러날 수다. 75년생 겉치기 때문 분주한 하루가 되겠다. 87년생 일관된 소신으로 단호하게 결단하자. 행운의 숫자 : 32, 42	45년생 쉽게 보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으니라. 57년생 결정적인 순간에 터지게 된다. 69년생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면 중차대한 것을 놓치게 됨을 알라. 81년생 선택적인 효과를 보게 되면서 작용력이 커진다. 행운의 숫자 : 15, 02
辰	40년생 상대의 평은 의미가 없으니 자신의 판단을 중시하라. 52년생 쾌도난마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64년생 꽃피는 봄날을 맞이 하리라. 76년생 영광을 안는다. 88년생 표리부동하니 전후의 사정과 면모를 잘 살펴라. 행운의 숫자 : 57, 67	46년생 절실한 사항에 대해서 관여하게 된다. 58년생 구태의연한 인습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볼 일이다. 70년생 안목을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82년생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이다. 행운의 숫자 : 29, 92
巳	41년생 능비가 있을 수다. 53년생 응응의 묘리가 필요하다. 65년생 상대의 의중을 왜곡시켜서 받아들이면 아니 된다. 77년생 불변한 관계가 될 수 있다. 89년생 제반사가 서서히 풀려나갈 것이니 마음 편하게 가져도 된다. 행운의 숫자 : 78, 24	47년생 자기 껍데에 자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59년생 가변적이니만큼 폭넓게 대처해야겠다. 71년생 과욕을 부린다면 무리가 따르리라. 83년생 주변의 개별적 의사를 전혀 의식할 필요 없으니 웃대를 갖고 밀어붙여라. 행운의 숫자 : 87, 9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